

안녕하세요? 천주교인권위원회입니다.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하여 김정대 신부님(예수회)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륭전자 앞에서 시국미사를 여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람에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시국미사에 함께 해주세요"

- ◎ 일시 : 2008년 8월 26일(화) 오후 7시
- ◎ 장소 : 기륭전자 앞
- ◎ 미사 주례 : 김정대 신부 (예수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당신이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임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비로소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하늘을 쳐다봐서는 당신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느라 우리의 발밑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음하고 있는 당신을 보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당신을 향한 기도는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그런데 세계화는 우리에게 강한 것만이 최고라는

잘못된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희 교회가 안타깝게도 강함, 높음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느라

세계화의 흐름을 쫓아 당신과 당신 백성을 저버리고 있음을 용서해주소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해고의 슬픔, 복직을 위한 고독한 싸움의 현장을 지키는

기륭전자 노동자들을 외면한 저희들을 용서해주소서.

당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었듯이

저희 역시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2005년 전체 직원 300명 가운데 25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여성노동자들은 99%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였습니다. 파견근로가 불법임이 밝혀져 회사에선 500만원의 벌금을 물고 1년 미만의 노동자들을 해고시켰습니다. 그들은 당시 한달 월급이 64만원이었고,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250억원이었습니다. 기륭전자에서 해고된 34명의 노동자들이 1,080일 동안 회사측에게 정규직으로 복직시켜줄 것을 호소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녀들의 투쟁과 바람과 호소를 기억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만한 정부와 노동자들을 비웃는 기업인이 회개할 때까지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지난주 18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동조 기도 단식을 마치는 26일 화요일 저녁 7시에 기륭전자 앞에 모여 시국미사를 봉헌하려고 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지도 확대/인쇄는 우측버튼을 이용하세요!



◆ 대중교통 ◆

- ▶ 가산디지털단지(2번출구)
 - 마을버스: 금천3
 - 충남슈퍼앞 하차
 - 기륭전자(정면 50m)
- ▶ 구로디지털단지→
 - 마을버스: 금천3(가산디지털단지행)
 - 충남슈퍼앞 하차
 - 기륭전자(후방 50m)

◆ 자가운전 ◆

- ▶ 시흥IC→코카콜라3거리(우회전)
 - 막다른 철길3거리 우회전
 - 첫번째 신호등 10m전 골목 우회전
 - 50m전방 기륭전자 정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219-6
 Tel : (02) 3282-2200(대표)
 Fax : (02) 864-1672, 1675